

BASF, 미래혁신기술 20가지 공개



BASF는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<혁신기술 전시회 월드투어>를 개최한다고 5월8일 발표했다.

2012년 1월 독일 만하임(Mannheim)에서 시작한 투어는 세계 8개 도시를 거쳐 한국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.

전시회에서는 유기 태양전지, 최신 단열재, 지속가능한 콘크리트 등 20개의 미래 혁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.

신우성 한국바스프(BASF Korea) 대표는 “화학이 어떻게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

하는지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한국바스프는 6월1일 전시 마지막 날에 시민에게 전시관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며, 관람 신청은 5월13일까지 한국바스프 페이스북(www.facebook.com/BasfKorea) 등에서 할 수 있다.

<화학저널 2013/05/08>